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왕고참의 역투… 호랑이 4강 이끈다

〈이대진〉

서재응 '아트피칭' 부활…후반기 25이닝 2실점 쾌투

이대진 '폭포수 커브'…관록투로 마운드 붕괴 막아

'노련함'이 광속구 구단 KIA 마운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17일 서재응의 칼날 제구를 앞세워 천적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7-0 승리를 거뒀다. 끈질긴 승부로 KIA 마운드를 괴롭혔던 넥센 타자들은 노련한 서재응 앞에서 6이닝 동안 3개의 안타를 뽑는데 그치며 영봉패의 수모를 당했다.

팀에 귀중한 승리를 안겨준 서재응은 시즌 7승째를 기록하며 국대 복귀 후 최다승 기록을 쌓았다.

서재응은 올 시즌 3.19의 방어율로 7승5패 1블론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성적만으로는 '빅리거'의 명성에 부족한 느낌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짜배기 활약이다.

서재응은 국내 복귀 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며 두 시즌에서 각각 79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올 시즌 107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마운드를 수성해주고 있다.

특히 4강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후반기 4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끊으며 3연승을 달리고 있다. 후반기 4경기 방어율은 0.72. 단 4개의 사사구를 내주는데 그친 서재응은 삼진은 16개를 뽑아냈다.

한층 넓어진 스트라이크존을 백분 활용한 서재응은 완벽한 컨트롤로 좌우 코너를 공략하며 상대의 허를 찌르고 있다.

서재응 전·후반기 성적비교

	전반기	후반기
경기	15경기	4경기
방어율	3.94	0.72
승패	4승5패	3승
이닝	82⅓	25
피홈런	6개	1개
실점	37점	2점

KIA는 올 시즌 157㎞까지 찍은 곽정철을 필두로 윤석민, 로페즈, 콜론, 양현종 등 150㎞가 넘는 직구를 뿌려대는 '강속구 군단'. 컨트롤을 무기로 하는 서재응의 활약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다.

마운드에서 '컨트롤 아티스트'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는 서재응은 덕아웃에서는 응원단장 역할을 자처하며 올 시즌 KIA 마운드의 구원자가 됐다.

노장 이대진의 노련미도 서재응의 활약과 맞물려 빛을 발하고 있다.

이대진은 시즌을 앞두고 기흉으로 쓰러졌다. 전반기 이렇다할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2군에 머물렀던 이대진은 윤석민, 전태현 두 선발의 공백으로 생긴 마운드 붕괴 위기에서 1군에 콜업됐다.

지난 7일 후반기 첫 등판에서 이대진은 폭포수 커브를 내세운 노련한 승부로 두산 타선을 5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이대진의 깜짝 호투에 힘을 얻은 KIA는 6-2로 승리했다.

15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3피안타 6사사구로 1실점 하며 4회를 채우지 못했지만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흔들리던 마운드를 지키며 4위 싸움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노련함을 내세운 두 고참의 관록투가 KIA의 풍성한 가을잔치를 예고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서재응〉

KIA 우천 취소경기도 군산서 해야 하나

편의·숙박시설 등 부족 … 선수단 불편 호소

타구단 '제 2구장 경기' 취소땐 안방서 재개

KIA 타이거즈가 오는 9월 7·8일 군산 월명구장에서 한화 이글스와의 대결을 갖는다.

우천으로 열리지 못했던 두 경기가 재배정된 것이지만 이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청주와 마산을 '제 2의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화와 롯데는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추후 대전과 사직에서 경기를 갖는다. 하지만 KIA는 군산시와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4번째 군산 원정을 가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해 KIA는 군산에서 SK를 침몰시킨 김원섭의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을 만들었다. 페넌트레이스 1위도 군산에서 확정지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KIA는 앞선 7번의 군산경기에서 1승6패의 성적을 기록했다.

시즌 첫 두 경기에서 1만1000명이 입장하며 만원사례를 이뤘지만 성적하락과 함께 관중수도 급감, 8월6일 두산과의 경기에는 5341명이 찾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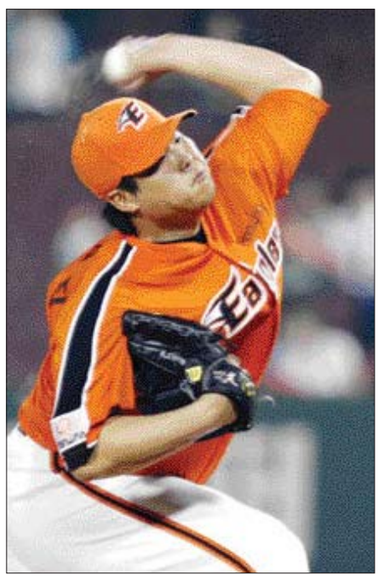
지난해보다 3경기를 더 군산에서 치르게 되면서 선수단의 불편도 가중됐다.

군산시는 올 시즌 샤워실을 신설하고, 덕아웃을 정비하는 등 새 단장을 했지만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선수들은 훈련이 끝난 뒤 구단 버스에서 2~3시간 대기해야 하는 처지다. 그라운드 사정도 좋지 않아 부상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다.

상대팀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8월 6~8일 군산에서 만난 두산은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아 전주에 호텔을 정하고 경기장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다. 선수단 외에도 매표소 업무와 경기장 진행 등도 KIA에서 담당하면서 수십 명의 인원이 군산 원정에 나서고 있다.

KIA는 군산 원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군산의 야구 열기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역 야구팬들과 선수단의 편의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허들 넘고 물 건너~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2010 청소년 올림픽 여자 2000m 장애물 경주 참가 선수들이 한치의 양보 없는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괴물' 류현진 29경기 연속 QS

〈퀄리티스타트〉

'괴물 투수' 류현진(23·한화)이 선발 등판한 29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 투수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에 성공하면서 당대 최고 왼손 투수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류현진은 17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010 CJ마구마구 프로야구 LG와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9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솎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했다.

이로써 류현진은 지난해 8월19일 삼성과 대전경기에서 선발로 6이닝 동안 2실점한 뒤 29연속 퀄리티스타트를 작성했다. 류현진은 한 차례 중간계투로 등판한 적이 있다.

지난해 8월19일 경기 이후 6경기에서 연속 퀄리티스타트에 성공한 류현진은 지난해 9월23일 LG와 대전경기에서 중간으로 나왔고 올해 선발 출격한 23경기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일궈냈다. 29연속 기록을 세우는 동안 평균자책점은 1.73을 올렸고 3차례 완봉승을 거뒀다.

29연속 퀄리티스타트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좀처럼 찾기 어려운 희귀한 기록이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퀄리티스타트를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계 전문 회사인 스태츠가 1952년 이후 집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 김선우 AG 예비엔트리 포함

두산 베어스의 우완 김선우가 광저우 아시안게임 예비 엔트리에 포함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KBA)는 18일 김선우를 아시안게임 예비 명단에 추가 선발했다. 김선우는 올 시즌 11승을 거두며 국내 우완투수 중 최다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류현진(한화)·김광현(SK)·양현종(KIA) 등 좌완 선발진에 비해 확실한 우완 선발 투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대한체육회(KOC)로부터 아시안게임 예비 명단에 포함된 인원 외에 상황에 따라 필수 인원 추가 증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진행됐다.

예비 엔트리에 포함됐던 롯데 조정훈이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되는 등 KIA 에이스 윤석민 외에는 우완 선발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KBO와 KBA는 9월 초 최종 명단을 확정해 대한체육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